

# ‘2026 나주 방문의 해’ 5대 핵심 전략 추진단 가동

## 시, 전 부서 협업 체계 구축…‘500만 관광도시’ 실현 행사 연계·관광인프라·수용 태세 강화 등 전반 점검

‘2026 나주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나주시가 전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는 내부 협업 체계를 본격화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 방문의 해’와 연계된 시정 전반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문의 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중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운

영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부서별로 진행 중인 방문의 해 관련 사업을 공유하고 전체 사업의 흐름을 점검하는 내부 협업 기구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하나의 방향 아래에서 연계 및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통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중복이나 공백을 사전에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율하며 방문의 해 추진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추진단은 연간 행사 통합 관리와 연계를 통한 행사 기획과 운영, 경관과 동선 정비를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방문객 혜택 중심의 지역 소비 연계, 위생·안전·서비스 품질 관리 등 수용 태세 개선, 운요프라인 홍보 확산 등 5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방문의 해 추진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방문의 해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협업 사항과 관리 방향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

졌다.

시는 앞으로도 방문의 해 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2026 나주방문의 해’가 연중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500만 관광도시 실현을 목표로 관광안내판과 관광지 환경 정비 등 방문객 맞이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관광객이 나주의 역사와 문화, 음식을 즐겁게 체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조화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나주시가 최근 진행한 방문의 해 추진단 추진상황 보고회 모습.

## 광양, 근로자 맞춤형 고용안정·기업 지원 본격화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국비 80억 확보

광양시는 고용노동부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최종 지정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역 산업 여건 변화 등으로 고용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고용 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1월 월간산업 침체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철강 분야 고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정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안했으며,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이번 지정이 이뤄졌다.

시는 내년 2월 12일까지 1년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적용받게 되며,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용 회복·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정으로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직업훈련 및 전직·재취업 지원,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연계, 기업 경영 안정 및 인력 운용 지원 등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돼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고용노동부 ‘버팀아름사업’과 연계해 최대 80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관련 사업 발굴과 공모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

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기업과 유관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해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며 “앞으로 국비 사업을 최대한 확보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고용안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갔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재진 기자 kjkjin@gwangnam.co.kr



완도군은 지난해 28개 업체로 구성된 정보교상단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총 1838만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과 552만달러의 실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특산물 수출 상담회 업무 협약체결 모습.

## 완도, 장보고 상단과 수산물 해외시장 공략

### 1838만달러 수출 협약·552만달러 실 계약 체결

완도군은 지난해 28개 업체로 구성된 정보교상단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총 1838만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과 552만달러의 실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지난해 3월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4월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장보고 한상 세계대회’와 연계한 수출 상담회를 통해 1380만달러의 수출 협약, 480만달러의 실계약을 성사시켰다.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과 월드푸드 한

국비지니스엑스포 인천 등 4개 국제 전시회에 참가해 바이어와 478건의 상담 진행, 458만달러 규모의 업무 협약과 72만달러의 실계약을 체결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5개국에서 총 7회 판촉 행사를 개최해 49만달러 규모의 수산물을 수출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에는 전복

이 꾸준히 수출되고 있다.

군은 올해도 완도 수산물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5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때 세계 각국의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열고, 해외 주요 식품 박람회에서 장보고 상단과 완도군 공동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완도 수산물의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출길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 목포대, 지역 창업 생태계 고도화 성과

### MNU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중기부 최고 등급 획득

목포대학교 창업혁신센터가 운영하는 ‘MNU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인 S등급(최우수)을 획득했다.

전국 49개 운영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 창업 연계, 이용자 만족도, 기업지원 우수사례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진행했다.

MNU메이커스페이스는 단순한 창작 공간을 넘어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사업화,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조창업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실제 지난 1년간의 운영 성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연간 이용자 수 7000명 이상을 기록했으며, 신규 창업 37개사 발굴, 시제품 제작 2000건 지원 등 양적 성과와 함께 투자유치 40억원, 판로 지원 80건, 제품 상용화 50여건 등 실질적인 기업 성장 성과도 이

어지며 지역 제조 창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MNU메이커스페이스가 구축한 ‘제조창업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의 경쟁력 고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대학생과 지역 청년, 주민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고 실제 창업으로 연결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영재 목포대창업혁신센터장은 “이번 S등급 달성은 국립목포대가 전남 지역 제조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스타트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목포대 창업혁신센터는 메이커 기반 창업 지원과 기업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제조창업 모델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목포=이윤기 기자 leeK2123@



보성군은 최근 ‘2026년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 및 서약식’을 개최했다.

## 보성, 청렴 문화 확산…실천 결의·서약

### 의회·노동조합 공동 참여

보성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보성군·보성군의회·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2026년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의·서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 최옥보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보성군 공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공감형·체감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전 행사로 보성군립악단이 창극 형식의 공연 ‘임행어사 녹차몬의 청렴 보고’를 선보이며, 청렴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 부당 이익 금지, 알선·청탁 근절, 외부 부당 간

섭 배제 등을 담은 청렴 결의문을 공동 낭독하고, 청렴 구호를 제창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실현을 다짐했다.

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렴 실천을 전 조직 차원의 일상 규범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20일까지 각 부서와 읍·면에서 자체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전 직원이 업무일지 청렴서약서에 서명해 실천 의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사회의 기본 가치”라며 “전 공직자가 한뜻으로 청렴 실천에 동참해 군민 신뢰를 높이고, 청렴 군정 실현으로 보성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부터 4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 등급인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8@gwangnam.co.kr

## 함평,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 내달 13일까지…전년 대비 10만원 증액

함평군은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3월 13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농가당 연 70만원으로,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전년 대비 10만원 증액됐다.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 담양,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생 모집

### 작목 탐색·영농 체험반 운영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영농 경력 5년 미만의 귀농·귀촌인과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중차 파종부터 육묘, 정식까지 직접 체험하는 ‘영농체험반’과 딸기,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재배 현장을 방문하는

‘작목탐색반’ 2개 과정으로, 현장 중심 교육으로 구성했다.

담양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신규 농업인이 몸으로 직접 영농을 체험하고 실제 농가를 방문해 생생한 현장을 경험한 뒤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이번 교육이 성공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은 3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총 11회에 걸쳐 진행한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 교육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박정렬 기자 holbui@gwangnam.co.kr